

‘무속연관설’, ‘중립’ 주장 강력비판

보수 기독교계, “극심한 분쟁과 혼란 중 부적절”

기독교계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무속과 연관돼 있다거나 혹은 기독교인들이 헌정국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보수 기독교계가 23일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시국성명서】

외국인 주장에 대한 검증과 반박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도(正道)가 아니다” “정치권에 무속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 기독교계에서 무속 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기독교계나 종교계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주고 국민 대 통합에 앞장 서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성경을 인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

극심한 분쟁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이런 발언은 여러 모로 적절하지 못하며 그 주장에 나타나 있는 의도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은 헌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으며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

1.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도(正道)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대통령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77조이다.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비상계엄선포를 해야 할 만한 국가 비상사태임을 판단하는 것 역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과 통치행위에 대하여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닛 뜨거운 주장이다.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와 여러 차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우국충정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시국의 절박한 상황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더욱이 지난 수개월 동안 법과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자들의 작태를 목도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통탄하고 절규하는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은 신앙과 양식(良識)의 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2. “정치권에 무속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 기독교계에서 무속 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무속과 무속신앙의 근저에는 사탄이 있다. “우리



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교회(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를 생하여도 2천 년이 더 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놀라운 승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무속과 무속신앙이 만연하였고 일종의 문화로 여겨졌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은 도시나 마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영적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도외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계에서 무속 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뚱맞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추측이나 조작된 소문으로 무속신앙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출석하였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되어 52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동안에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였다.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안보, 한미동맹, 시장경제, 법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한편 반국가세력과 종북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고 간첩을 소탕하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말과 행동으로써 일관성 있게 표명하여 왔다. 또한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의지와 결단은 대통령의 심령에 새겨진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3. “기독교계나 종교계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주고 국민 대 통합에 앞장 서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성경을 인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어느 한편이 아닌 중간은 무엇인가? 사악한 사상과 선량한 사상 중 어느 한편이 아닌 중간은 무엇인가? 기만하는 자들과 신실한 자들 중 어느 한편이 아닌 중간은 무엇인가? 불법과 불의로 행하는 자들과 적법과 공의로 행하는 자들 중 어느 한편이 아닌 중간은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부합되게 행하라는 뜻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파·좌파, 보수·진보의 개념은 다양하다. 그 나라 혹은 그 사회가 직면한 현실 상황에 따라 개념이 형성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좌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과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식된다. 종북좌파라고 부른다.

시국의 혼란은 놀랍게도 개인이나 조직체의 실상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속성이 어두움에 속한 것이나 빛에 속한 것이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거나, 잠재하였거나, 포장되었던 실체가 탄핵시국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모름지기 지도자, 성직자, 선생의 신분을 가진 자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편에 서야 하고 이 일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타타를 속이는 애매모호한 언행과 이중적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3월 23일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회관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전국기독교총연합회(가나다 순)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실상(實狀)’



조용묵 목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8~10)

본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판단에 관련하여서 그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세상, 시간적으로 한정되는 어떤 세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등을 의미합니다. 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모욕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마 5:10~12)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욕해도 실상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벧전 4:14)

둘째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악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아무리 비방하고 악하게 말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악한 이름으로 부르든 실상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의인,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셋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 진리를 허황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녀 탄생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과 내세에 관한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종교의 가르침은 모두 속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만이 진실합니다.

넷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흘 무명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진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벧 4:3)

다섯째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죽음이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부활의 날에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요 11:25,26)

여섯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무수하게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곤란을 당할 때는 징계를 받아 버림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순수하여집니다.(고후 4:8,9)

일곱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지 않고 멸망 길로 가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악한 자를 볼 때 혹시 시험에 들게 되지는 않을까,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불신자에게 없는 근심이 있지만 반면에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시 30:4,5)

여덟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보다 탁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나 학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아홉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것을 주시니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고 취급하는 그 신분은 매우 존귀하며, 그 소유는 심히 부유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정책위원회에 추천 의뢰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모임 가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4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74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지난 3월 31일까지 임원임후보자가 없음을 보고를 받고 총회개회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없다

록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조갑순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31일까지 임원 임후보자가 없음으로 헌법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진이 추천되면 관련서류를 정리 자격심사를 거쳐 임원진을 공포하게 된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후 결의 및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보고사항으로 정가지방회 개최에 관련한 사항으로 오는 4월 9일(수)까지 74차 총회 지방회 신 임원선출을 마무리하여 정기총회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안내하고 74차 정기총회가 5월 19일(월) 개최됨을 알렸다.

아울러 74차 정기총회가 5월 19일(월) 은혜와진리

교회 양양성전에서 개최됨에 따라 총회 준비에 따른 준비사항을 잘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치상황의 안정을 위해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며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아울러 하나님을 배도하는 WCC, WEA와 조직적으로 교류를 갖고 서울총회를 준비하며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부 대형교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11회 임원회

사법질서의 부조리와 선관위 부당성 알게 돼

WEA 서울총회 추진 일부 대형교회 배도행위 중단 촉구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코스망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11회 임원회가 지난 3월 20일(목) 오전 11시 순복음잠잠교회(담임 오세준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장동근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



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준 목사는 고후 10:17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자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했는데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생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인 일은 그릇된 행동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미동부지역 복음화대성회 개최

한국기독교영풍회, 뉴저지·뉴욕·오하이오 순회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김순희 목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미동부지역 복음화대성회를 개최했다. 성회 주강사인 김용희 목사(꿈이있는교회), 성권상 목사(행복한교회)가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등을 돌아가며 성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영풍회 전임회장 성권상 목사(행복한교회)는 3월 15일(토) 저녁 뉴저지의 베데스기도원(원장 최현숙 목사)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막16:19)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도가 기도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면 응답을 더욱 잘 받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 3월 16일(주일) 뉴저지의 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에서는 '예배가 답이다'(창 46:1~4)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했다.



이날 뉴욕의 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는 집회차 뉴욕을 방문한 대진대학 원대학교 교회성장연구원장 김용희 목사를 초청해 주일예배를 드렸다. 김용희 목사는 '하나님나라'(눅 17:20-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에게 자신의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생 위대하고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율리엄 캐리다.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좌우명으로 살아, 결국 인도에 복을을 전하는 사역을 이뤘다"고 했다.

기독교학술원, 2025년 1학기 개강 및 19기 입학식

키프리안 주교, 교회론 정립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은 2025년 1학기 개강 및 19기 입학식을 지난 3월 6일(목) 개최했다. 새 수사생도 5명 입학 및 생도(生徒) 서약식도 진행했다.

2025년 1학기 신입 생도 과나운 목사(백석), 노영수 목사(인전 선천교회, 백석), 박성석 목사(사천시 수우도교회, 합동), 전주영 찬

양사역자(합동), 김윤기 목사(수원중앙교회, 성결) 등은 8학기를 수련하면서 성결·순종·섬김 실천을 할 것을 서약했다.

오성종 교무부장은 '전도자와 사역자의 사역 태도(고전 15: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역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한 원장은 수련 목표를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 연합'으로 강조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 존중과 순종 관계 형성, 개혁신앙의 영성을 추구하자고 권면했다.

개혁 영성의 본질에 대해선 존 오웬(John Owen)이 추구한 '내 속의 죄 죽이기(mortification)'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vivification)'을 제시했다.

이후 김영한 원장은 '성 키프리안의 영성(I)'을 주제로 개원 기념 강의를 진행했다. 성 키프리안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교구 주교로서 초창기 서방교회의 통일성을 강조, 교회사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기독교학술원 2025년 1학기 수사과정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학기는 3월~5월이며, 격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성서공회, 해외 6개국에 성경 기증예식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그리스·요르단·토고 등에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영환 목사/이하 공회)가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6개국에 성경 36,139부를 보내는 기증예식을 가졌다.그리스-그리스어 신약 14,500부, 요르단-아랍어 성경 3,500부, 토고-프랑스어 성경 5,700부, 도미니카공화국-스페인어 성경 5,124부, 콜롬비아-나사어 성경 3,600부, 크로아티아-크로아티아어 성경 3,715부)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서울광염교회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제작, 반포되는 성경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를 소망했다.

그리스성서공회 미카일 사치지아니스 총

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 총무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세계 물의 날’ 맞아 워터쉐어 캠페인 진행

월드쉐어, 식수위생 캠페인 건강한 물 지키기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UN이 경각심을 위해 정한 날이다. 국제구호개발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는 식수위생

캠페인 '워터쉐어'를 통해 물 부족 국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보건 위생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활발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지난해에만 식수 접근성이 취약한 네팔,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물 부족 국가 1만2844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수원 및 위생시설 51개소를 설치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다.

또한 올해에도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을 대상으로 기설치된 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자가 있는 위생시설을 보수하는 등 건강한 물 지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쉐어 국제사업부 지역개발사업1팀 이병희 팀장은 "월드쉐어는 우물을 지원하는 사업과 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정수 시스템을 보수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원로목사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

3월 월례회 및 감사예배 참된 위로와 말씀의 은혜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김성만 목사/이하 한기원)는 지난 3월 20일(목)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3월 월례회 감사예배를 드리고 원로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처장 방광민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정도출 목사의 대표기도, 권수진 전도사의 성경봉독, 한기원 찬양단의 찬양 순으로 진행했다.

총신대학교 전 총장 정일웅 목사는 시 90:9~16 말씀을 본문으로 '충실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연젠가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며 그 길은 하나님의 품이다.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향기·하이다운 목사의 봉헌후, 부



이사장 최영순 목사의 한금기도 후 참석자 모두가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신학연합회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는 '한기원의 부흥발전을 위해', 누가선교회 법인 감사 정준기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회복을 위해', 한기원 여성처장 채인숙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누가독립교회총

연합회 회장 박주환 목사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기원 교수위원 김병준 목사는 '나라와 사회 경제회복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이창희·이종택 목사의 선창으로 대한민국과 기독교인, 한기원을 위한 만세찬가를 갖기도 했다.

한국장로총연합회, ‘어게인’ 방문 격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비 지원금 전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이하 한장총)는 지난 3월 11일(화), 경기도 부천의 위기청소년 복지시설 '어게인'(대표 최승주)을 방문, 한국어교육비 지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어게인'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이들은 주로 국제결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

에 한국어로 입국한 청소년들로 언어 장벽뿐 아니라 문화 적응, 정체성 혼란, 교육 및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지원, 심리·정서 지원,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에 청소년들도 힘들어 하는 가운데 위기청소년들을 돕보는

어게인을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주된 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처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어게인의 최승주 대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곳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학습 지원, 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멘토 역할을 하여 종교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살롬나비 ‘월례 포럼’ 용인에서 열려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과 신앙의 접목

용인가림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에서는 최근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환 박사)가 개최하는 제58차 월례 포럼이 있었다.

이날 월례포럼은 가림의교회 금요예배 시간에 진행되어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살롬나비 사무총장 김윤태 박사(백석대 기독교정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총무 이관표 박사(한세대 교수)가 한국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전 사무총장 이일호 박사(갈빈대 은퇴교수)가 한국사회와 안정을 위해, 음악이사 방선이 선교사(GMS 원로선교사)가 세계선교와 평화를 위해 순서대로 기도했다.

포럼 주제강연은 '성령으로 세례받음에 대하여'((The Baptism in(with) the Holy Spirit)'라는 주제로 전 합동신대학원대학

교 교수인 유영기 박사가 맡았다. 유 박사는 보수적인 신학을 했음에도 "신약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석사 논문을 쓸 정도로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과 오늘날의 신앙의 접목에 대해 연구해 온 신학자이다.

그는 사도행전 1장 1-5절을 중심으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령 세례와 성령충만, 방언과 은사와 예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역사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동성애는 죄” 가르쳤다 해고 2심도 패소

친동성애 교육에 반대 이유로 유죄 선고받았던 한 교사

영국에서 기독교적 신념 때문에 친동성애 교육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 교사가 고등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영국의 고등법원 베벌리 랭(Beverly Lang) 판사는 3월 20일(이하 현지시간) 글로디스 레제르(Glawdys Leger-44) 교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레제르는 켄트주 브롬리에 있는 영국 저스티스 주교 성공회 학교(Bishop Justice Church of England School)에서 12년간 현대어를 가르치다가, 지난 2022년 5월 해고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레제르 교사는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된 토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



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

았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그녀의 발언을 메모하고 녹음한 후 "레제르 교사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불평함과 괴로움을 줬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는 이후 레제르를 교육규제기관(TRA)에 신고했고, 2023년 12월 TRA는 그녀의 '용납할 수 없는 직업적 행위'에 대해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교직을 무기한 금지하지는 않았다.

TRA는 "교육부 장관은 우리의 권고를 고려했으며, 금지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며 "이 결정의 세부사항은 교사 기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 생명의 말씀 ■



김 바 울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지방교회장
- 순복음진리교회 담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 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렸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 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 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하시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 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부활했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로 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 가시뎀불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뎀불 불꽃으로 임재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할 네 조상 아브라함 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을 때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와 함께 임 마누엘로 역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 22장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천국에서의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과거나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에코 네크론 에게게

르타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개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아나셨다"로 번역했습니다(고전 15:12 참조). 이것은 한글개역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어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 22:31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데스 아나스타세오스 톤 네크론)"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즉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에 생령(성령)이 들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스 아나스타세오스 톤 네크론"을 직역하면 "그 죽은 자들이 위에서 세워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늘에서 세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천국에서 부활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뒤 천국에서 부활해서 사는 삶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 22:30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라고 할 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활"이라는 표현만 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죽은 뒤에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부활을 경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살리시는 부활에 참여된 자 되게 하옵소서.

삼롬^^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적법(適法)한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05년 8월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2016년 3월이었다. 무려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법률에 따른 활동을 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9년째 빈 수레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씩, 1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는 이사 5명을 추천하여 국회에 올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14차례에 걸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오죽하면 2023년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를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차지한 국회는 요지부동(鑿之不動)이다.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임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져 있다.

인권은 정치적,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부(恥部)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천부적, 보편적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와 ‘인권’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그동안 약 20년간 뭉개버린 북한 주민의 ‘인권 천대’로 인하여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과 고통을 당했는가?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혀 언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극심한 인권탄압을 당할지 모르는 병사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들을 구출해 내는데 얼마나 요긴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 국회의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았는가?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분야에 연간 1,000만달러(한화 145억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북한 인권 활동도 지지부진하고, 그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의 ‘북한 눈치 보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탄핵에만 전념하는 ‘탄핵주력당’이 되지 말고,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보편

적인공중심당’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국회가 개원되면 동성애자 옹호와 그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런 민주당이 북한인권에 관하여 차별적, 차등적, 선택적, 이념적 잣대를 갖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시대에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이념적, 왜곡된 인권상(人權像)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최악 중에 큰 최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독교 의원이 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인권을 위한 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목양시평

이재명 살리려 법치 짓밟은 서울고법 형사6부 판결

법은 정의의 최후 보루다
법은 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자 정의의 최후 수단이다. 아무리 정치가 타락하고 권력이 부패해도, 법만큼은 끝까지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공의의 집현자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런 기대와 원칙을 무너뜨렸다.

1심과 정반대로 뒤집힌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혐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 2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여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사법부, 법과 증거 대신 정치적 판단
판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장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억지로 범리를 꺾맷겠다”는 나 의원의 비판이 정확하다. 더구나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라는 지적은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공직선거법의 근간이 무너졌다

공직선거법의 본질은 유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이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를 가장 큰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그 원칙은 무너졌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력화됐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거짓말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법원이 ‘거짓말도 의견’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어쩌면 이런 인간 이하의 상식을 법이라 우기며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 법률을 읽고 법정에 앉아 있더니, 소름이 끼친다. 이를 어찌 법조인, 판사와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둘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실무 총괄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고, 골프도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인식’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거짓말조차 의견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최악의 판례를 만든 셈이다.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구조가 무너진 법리

대장동에서는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챙긴 민간업자가 존재하고, 백현동에서는 75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등장한다. 백

현동의 4단계 증상향이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등장한 뒤 이뤄졌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허가의 최종 책임자가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사실을조차 외면했다.

편향된 재판부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적 고려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배승희 변호사는 “정재오 판사는 과거 백현동 사건에서도 성남시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말아 시간을 끌다 결국 패소를 확정시킨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재오가 이재명과 사건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예슬 판사는 법조계에서 ‘개딸 판사’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밝혔다. 이렇게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과연 공정한 판결이 가능했겠는가.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의 그림자

결국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조 카르텔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가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다. 법과 상식이 아닌, 사법 카르텔의 이해관계가 움직인 판결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한 법조 모임

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킨 ‘법조계의 하나회’라 불러 마땅하다.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 즉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의 분노, 국민의 울분을 대변하다
여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소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이 무죄라고? 정의가 산산조각났다. 대한민국은 이런 판사를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니?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에 대해 직접 언급을 안 했다고? 국감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과장되었지만 허위는 아니라니? 그게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내용이 아니라고?”

“여보시오! 판사님들! 국민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오?”황 전 총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진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참담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장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

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식의 판결이 반복된다면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는 물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가 유용 사건까지 모두 무죄로 귀결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의원이 말했듯, 대법원은 3개월 내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법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백현동 발언이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바뀌는 만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나 의원의 외침처럼,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법원 스스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정의의 하수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드시 법과 정의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CT

최원호 목사 은혜제일교회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

동정

3040목회자 미래 사역 세미나



홀리브릿지네트워 크션교회(대표 박한수 목사, 이하 홀리브릿지)가 3040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 3월

17-18일 1박 2일간 경기 가평 오펜비전빌리지에서 '3040목회자 미래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표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3040 목회자들에게 “평생을 넘어 비범으로 준비된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단총연 김선규 목사 대표회장



국가의 국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목표로 (사)한국기독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공동대표 정학재 강현식, 사무

총장 윤덕남)가 세부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단총은 기존 연합단체와의 경쟁과 견제보다는 협력과 상생으로 공공의 변화를 이끌 것을 약속했다.

'성경적 성교육' 김지연 약사



백석대학교교회(담임 박인섭 목사)는 주일이었던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성경적 성교육'을 주제로 2025년 교사대학을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백석비전센터 1층 어울홀에서 열린 이번 교사대학은 교육부서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김지연 약사를 강사로 하여 진행했으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대형 산불 피해 성금 쾌척



방승언 유재석 씨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또 성금을 쾌척했다. 방승언 유재석 씨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경상도 지역의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해 달라며 3월 24일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산불피해주민 지원

모금 캠페인 참여 이어져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긴급구호 규모를 4월 1일 3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굿네이버스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주민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톡 가지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온라인 모금함 개설 직후, 하루 만에 약 10억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모금 캠페인으로 마련된 성금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는 35억 원 규모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한다. 피해 지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피해 지역 아동 가정에는 학용품 및 생활품,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3월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명 대표소에 무신사가 후원한 무신사 스탠다드 셔츠, 양말, 속옷 등 필수 의류 3천 500벌을 1차 배분했다. 3월 29일에는 안동둔치 주차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대원에게 한국과파존스가 후원한 피자 200판을 제공했다. 3월 30일과 31일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남 산청 지역 400 가구와 하동 지역 700 가구에 생활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굿네이버스는 오는 9월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트래닝복, 속옷, 경량 패딩 등을 포함한 의류와 생활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며,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내적 신앙이 중요

강원지방회 정기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권용덕 목사)는 지난 3월 27일(목) 오전 11시 영월열린 교회(유홍열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 후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지방회 개최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홍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주영 목사(강릉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장길 목사(태백성지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목사는 요 6:26-2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의적



인 종교적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내적인 신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김중애 목사의 헌금기도

, 지방회장 권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장에 원주샘물교회 박규희 목사를 선출하고 임원진을 선임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자 당부

전라지방회 정기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3월 24일(월) 오전 11시 전남 고흥시 소재 녹동순복음교회에서 74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유용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목사는 전 7:11-15 말씀을 본문으로 '돈 보다 유익한 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깨닫는 능력인 지혜가 돈 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를 언급했다. 지혜로운 자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기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둘째 곤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셋째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취한다며 오늘날 목회사역이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목회자



가 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다시 교회와 이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실 것을 축복했다.

설교 후에는 현재 영적 싸움의 혼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정책위원들을 위해, 교단총회와 교단 임원과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며 최형택 전임 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최남성 전임 지방회장의 기도 시작하여 회원 점명과 총무보고, 서기

보고, 회계 보고를 통과시켰고, 계속해서 전라지방회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월례회 때 상정한 안전대로 결의하여 현 임원진(회장 백영자, 총무 유용근, 서기회계 이태우)이 유임되었다. 마지막으로 총회 참석을 위한 준비와 여러 행사에 대한선 임원회에 위임하며 김갑신 전임 지방회장의 기도도 74차 정기지방회의 모든 회무를 마쳤다. 이후 녹동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점심식사와 다과를 먹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고 더욱 하나 되어 교단을 위해 섬기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부산지방회 월례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3월 25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반송교회(담임 한순남 목사)에서 3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미곤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대표기도, 홍찬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성경봉독, 조병희 목사(순복음기장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엡 1:7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

장 정기영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순복음반송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댄스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주님의 은혜로 힘 있게 사명 감당하자

충북지방회 정기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3월 24일(월) 중앙샘교회(김윤배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기도, 서기 정재광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이문근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문근목사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행 23: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기 2년 동안 임원들과 회원들의 협력으로 무탈하게 회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바울이 성령의 강권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죽음도 각오하고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라며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힘 있게 사명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이어 교단과 지방회, 각자의 섬기는 교회와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부교역자 김민주 전도사 임명 후 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이어 임원선출을 하여 신임 지방회장으로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후영순복음교회), 총무 오병용 목사(순복음아

멘교회), 서기 정재광 목사(생명샘교회), 재무 조재호 목사(장대교회), 회계 강원식 목사(주는교회)가 선출되었다.

이어 신임 지방회장인 김윤배 목사의 당선 인사 후에 이번 회기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 기타 사항은 신임 임원들에게 맡긴 후에 신임회장 김윤배 목사의 기도도 회의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오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힘 있게 전파하라

대전지방회 정기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이미순 목사)는 지난 3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금산순복음교회(김병목 목사)에서 '제74차 정기지방회'로 모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심관복 목사(반석위예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안선자 목사(대화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임원들의 특송,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한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고전 2:1-5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나타남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항상 성령충만하여,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충만하여 변화를 받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교단, 지방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회계 김희자 목사(새로와지는교회)의 헌금

기도, 전임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대전양무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지방회장 이미순 목사의 사회, 엄기설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정기지방회에서는 회원 점명과 회계 및 사업 보고를 마친 후, 제74차 대전지방회 신임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했다.

회장 엄기설 목사, 부회장 최성필 목사, 총무 이만규 목사, 회계 김희자 목사.

하나님께만 영광...정상호 목사 임직 감사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3월 22일(토) 은혜순복음교회(정상호 전도사)에서 담임 전도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먼저 김은숙 목사의 찬송인도에 이어 총무 서성영 목사의 사회로 정세창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이정수 전도사의 특송 후에 부회장 서경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목사는 벰전 2:9-11 말씀을 본문으로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날 우리는 예전의 영적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 이 땅의 가상의 세계에서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아무 것도 없는 헛된 무의 인생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는 말씀처럼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진태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임직식을 마치고, 김효신, 김남수 목사의 축사와 정석현 목사의 권면이 이어졌다.

이어 정상호 전도사의 답사와 광고 후에 서경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은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중식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정기영 목사 신유와 치유의 은총을 위해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 3월 17일-21일 신유와 치유 축복성회 인도

부산지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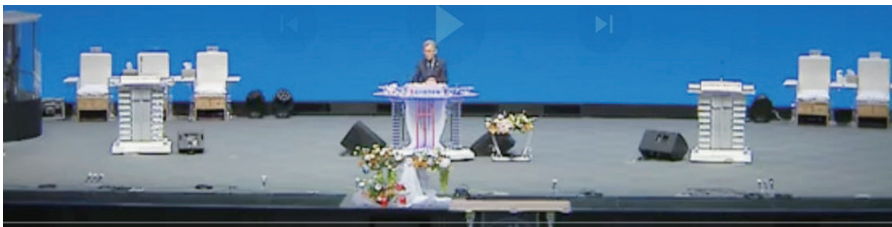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위 사진·순복음세움교회)는 지난 3월 17일(월)부터 21일

(금)까지 오산리교회원에서 열린 국제치유사역연합회(대표회장 정기영 목사) 주최 2025 치유성회에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고 신유, 치유 집회를 인도했다.

국제치유사역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대표회장인 정기영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신병의 치유를 위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간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또한 정목사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

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4-16)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병 낫기를 위해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여서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죄에서 놓여남 받고 신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현 상황 분노 않으면, 거짓에 속는 국민 될 수밖에”

3월 29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전한길 강사 울산에서

매주 토요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세이브코리아)가 3월 29일에는 특히 영남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기원하며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세이브코리아는 앞선 지난 3월 27일 산불 피해 지역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금과 피해지역 방화 지원 등을 위해 총 2억 원 상당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1부 예배에서는 추종령교회 김철홍 목사

와 세이브코리아 국제본부장 김윤숙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남치논교회 이훈 목사와 하이교회 정성용 목사가 각각 시작기도와 축도를 했다.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는 사회 및 산불의 조속한 진화와 수습을 기원하며 희생자와 이재민을 위로하는 특별기도를 맡았다. 찬양은 인크라이스트워십이 이끌었다. 2부는 팬애티마크 최대현 부장 사회로 국민대 이호선 교수, 시민 기성경 청년, 경희대 성태인 청년, 이화여대 이서경 청년, 월버포스크리스천스쿨 박민준 학생 등이 연단에 올랐다.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윤상현·조배숙·박대출 의원, 김형 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참석했다. 그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는 지난 주에 이어 보수주의 7대 원칙 중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철홍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고 방향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영적 나침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나라를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숙 목사는 “교회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사법부, 행정

부, 사회의 각 영역은 부패했고 여동이 곳곳을 장악했다”며 “여전히 많은 교회가 무엇이 부패인지, 무엇이 어둡는지 분별도 못 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 불이 났는데 화평과 연합만을 말하며 ‘불이 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무엇이 거짓이고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 가르치거나 깨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탄핵에 반대한다.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미래의 탄핵,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정치는 독재화되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외교 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탄핵 심판 결정은 대한민국이 미국 등과 같이 발전하며 공화국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등과 같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라며 “다니엘 4장 17절에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한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진술과 증거가 모두 오묘한 ‘독수독과’ 상태이며, 둘째로 절차상 법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삭제돼 본질이 사라졌고, 넷째로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탄핵 사유가 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형 전 대변인은 “10.27 연합예배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다. 그날이 없었으면 지금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모일 수 없었다”며 “지금 현재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앞은 보수의 성지가 됐다. 전지영 씨는 28일 동안 단식하다 윤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중단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긴 정치적 단식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태희 목사는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삶의 근본이자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기초이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성한 제도이며, 사랑과 위로, 행복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들의 사유 재산을 박탈하고 이 땅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 해체와 더불어 반드시 가정 해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정 해체 전략을 성정치(性政治)라고 부른다”며 “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거룩한 성운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가족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가정의 자리를 국가가 대신 차지하고 부모의 자리를 국가 공무원이 대신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민준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낭독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부정선거와 야당 예산 삭감 등과 같은 많은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관심을 부족했는데,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공산주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권을 맡겨 주시길 바란다. 건국 시기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이제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통일, 즉 진정한 한국을 완성시킬 것이다.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전했다. 이호선 교수는 “인류는 타락했기에, 어떤 제도를 가져도 완벽할 수 없고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의를 행한다며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악이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그곳 자체가 악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정도로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과 재판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결론이 났음에도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 특정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K-재판’이라는 신조어를 소

개하며 “이는 사법적 독립성과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된 것을 일컫는 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글로벌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꾸짖었다. 기성경 청년은 “이재명만큼 혐의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재명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국가의 중요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현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짓에 속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중들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이서경 청년은 “이화여대 시국 선언을 진행하며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시간이 됐다”며 “지금의 법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데 그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도회 후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1시간 가량 국회대로로 행진, 국회를 바라보며 합심기도했다. 같은 시간 울산 현대해상 극동방송 사거리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 그리고 김기현·박성민·장동혁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몇몇 연사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 같은 날 오전 11시 청주 충북도청 서문, 오후 2시 구미역, 대구 반월당사거리, 대전역 광장, 세종시 한누리대로 296, 순천역, 제주시청, 포항시청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기도회가 개최됐다.

“이재명만 무죄? 특혜이자 법 앞의 평등 무너뜨리는 일”

청년들,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열어 1심 유죄, 2심 무죄 확률 1.7% 불과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이 3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3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1.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점에서 많은 국민이 판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상고를 결정한 만큼, 이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 달라”고 외쳤다.

특히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노태약,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등 대법관 13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호소했다.

원우림 공동대표는 “이번 2심 판결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판결로 범망을 빠져나간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애매하게 범망을 통과하도록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대표는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의문을 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합리적 판결이 연속될 것이고, 이 나라에선 거짓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올바르게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청년들은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접하고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제 내려진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법리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범죄적 해석을 넘어, 법적 정의와 상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믿었던 법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 청년들은 “이 판결을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조작된 사진’에 대한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습게 만드는 법리이고,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해석도 너무 억지스럽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발언을 단순한 ‘외견’으로 치부하는 것은 법적·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가은 청년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발언의 본래 취지와 맥락이 왜곡된 점이다. 법원은 발언의 전체 맥락과 본질을 무시하고, 일부만을 잘라내 결정을 내렸다”며 “중요한 맥락이 사라지고 발언

의 의미가 왜곡돼, 판결은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 청년은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법원은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사실에 입각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망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승패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박승이 청년은 “대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앞선 오전 7시 40분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대만 타이쑹화평교회에서 단기선교활동

영동제일교회 김용덕 목사와 대만 단기선교팀 11명



영동제일교회(담임 김용덕 목사) 대만 단기선교팀 11명은 지난 3월 28일(수)부터 29일(토)까지 3박 4일간 영동제일교회 파송선교사이기도한 김성수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대만 타이쑹화평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대만의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했다.

대한민국보다 20여 년 일찍 복음의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화율이 7%대에 머무르는 대만 교회 현실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김성수 선교사는 이렇게 모교화된 영동제일교회에서 담임 김용덕 목사 내외분과 성도들이 직접

와서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 힘을 내서 섬길 것을 다짐했다.

대만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95%가 민간토속신앙으로 복음전파가 어려웠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관문이어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 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그렇지만 대만은 주저앉지 않고 침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 경제에 작은 섬나라이지만 그 어 느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

이번 한국의 모교회에서 방문하여 전폭적인 섬김사역을 펼쳐준 영동제일교회에 힘을 얻은 김성수 선교사는 깊이 감사드리고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여 대만 지역 선교확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선교에서는 한글학교 수장생(아주대학교)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 기도도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장애인 기관을 방문하여 섬기기도 했으며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선교헌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물려주는 것 우리 사명”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대회 개최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3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과거 회고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적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5천 년 역사 가운데 이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손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적 대한민국의 틀을 닦았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자유와 복음이 넘치는 나라를 실제로 성취해낸 사람”이라며 “그가 없었다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처럼 도시마다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의 속성과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봤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하나로 이 나라의 안보를 100년 보장하는 기반을 닦았다”며 “군국제도 하나만으로도 젊은이 20%가 예수를 영접하는 부흥의 통로가 됐고, 경복·병국제도 역시 복음과 나라를 위한 틀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최근 직접 설립한 ‘이승만학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믿었던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을 인재들을 길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물려주는 것이 지금 세대의 사명”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드린 기도에서는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가 “하나님께서 15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교·불교·무속에 젖어 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국가로 세워지게 하셨다”며 “그의 믿음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박 목사는 “우리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이 품었던 나라사랑의 꿈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을 영적 제사장 국가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기념식 1부는 문무일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조보현 부회장), 기념사(김남수 회장), 축사(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공로패 수여(도충현 장로), 축하연주(연

세첸바) 순으로 진행됐다.

김남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선견지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선각자”라며 “그의 우남 정신이 차세대에게 빛나는 유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대독을 통해 “이 대통령은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농지개혁과 의무교육으로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았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국가 안보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보훈의 이념을 따라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남성장연구소 이사장)는 “공산주의 혁명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 그 본질을 꿰뚫고 반공사상을 정립한 이 대통령의 혜안에 경의를 표한다”고, 박

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고 경제와 안보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국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2부 예배는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성경봉독은 최재형 트라스트포럼 상임대표가 맡았고, 찬양은 상명대 김정 교수와 아펜젤러 합창단이 참여했다.

이날 유족대표로 참석한 이화장 이병구 대표는 “건국은 이승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한 일이며,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48년 제헌의회를 선거로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국민 주권의 나라를 세웠고, 이 대통령은 그 건국의 중심이자 영적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며 “그의 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규학 감독(이승만전집 발간위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CT

필리핀지방회 33차 정기지방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교사역 감당

신임회장 및 임원진 회장 이요셉 선교사 등 유임

본 교단 필리핀지방회 제33차 정기지방회가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엠 스테이호텔에서 지난 3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감사로 참석한 교단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를 비롯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교회),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방교회) 등은 클락으로 향했다.

클락공장에 인접한 엠스테이호텔에 도착 필리핀지방회원들과 반갑게 만나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곧바로 정기지방회 개회예배가 필리핀지방회장 이요셉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이요셉 목사는 왕상 17:9-1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국을 떠나 낯선 땅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은 축복의 통로이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하고 또한 축복을 받는 존재며,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함”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 사랑교회)의 축사, 오세준 목사(예하성 교단총무, 참종은교회)의 격려사, 김명주 목사(순복음열방교

회)의 권면, 임형순 목사(교단 선교국장, 순복음아멘교회)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정기지방회 화무처리에 들어가 새로운 한 회기를 현 임원진에게 다시 맡길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종 회무를 모두 마쳤다.

25일(화) 오전에는 조은혜 목사의 인도로 미술치료와 집단 상담 세미나를 진행해 주었고, 그 이 후 식사교제, 간담회 시간 등을 가졌다. 26일(수) 폐회예배는 이도식 선교사(지방회 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김명주 목사의 간증과 오세준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오세준 목사는 마 25:14-3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다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오세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마쳤다.

모든 일정을 은혜가운데 마친 회원들은 한 마음으로 이번 정기지방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가져준 본교의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와 총회장 김영준 목사 및 총회임원, 그리고 총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몇 곳까지 오셔서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은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와 일행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한인 식당으로 옮겨 특식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충전된 마음으로 각자 사역지로 향했다.



2025년 사순절을 맞는 교회와 신자의 자세

사순절 기간 문화적 회개, 금식, 휴대폰 절제를 통한 성화의 삶을 실천하자

사순절(四旬節, 영어: Lent)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정결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갖는 금식과 금욕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기도 등 영적 훈련에 힘쓰므로 경건한 삶과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진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다. 일찍부터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앞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신자들의 경건과 영성 훈련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부활절 전 얼마의 기간을 정해 이를 실천해 오다가, 마침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부활절과 더불어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킬 것이 결정되었다. 사순절은 비록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교회가 동·서방 교회로 분열되기 전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결정한 우주적 교회의 결정으로, 이는 교회적 권위를 가지는 보편교회의 규례이며, 기일과 방식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서방 교회 모두가 지키는 교회적 전통이다.

매년 맞는 사순절이지만, 2025년의 사순절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연일 전국적인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좌우진영간 극단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적 분열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해와도 다른 사순절을 맞게 하고 있다. 이에 살뜰히 2025년의 특별한 사순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사순절이 되도록 하자.

사순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본성(本體)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러한 하나님의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가 이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동정하셔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하심이였다(빌 2:5-8).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신 것이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겸손과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2025년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낮은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우리 사회 국민은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따라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채 상호 적대적 비방과 혐오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는 자칫 불복(不服) 충돌 사태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민생의 어려움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며 미래를 절망하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과 지역에 따른 편가르기,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투쟁 속에 나라가 질곡의 고통과 혼란 속에 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소시민들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총동적 살인과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교만한 마음과 공격적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동정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비록 겸손한 삶의 실천으로 자신이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도모하며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같은 선상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측과 대통령 측이 이룬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돌아봄으로 국가의 대의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겸손한 자세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용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정치권 또한 여야가 상대 당에 대

한국교회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한국사회 안에 예수 살함과 화목을 이루는 모판이 되게 하옵소서.

해 겸손한 자세를 가짐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 대화와 상생의 정치가 실현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회개와 성화의 삶을 다짐하자.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애痛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함으로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영적 변화와 성화의 기회를 가지는 기간이다. 특별히 그동안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지나쳐 온 죄나 은밀하게 행한 죄를 회개하며 새사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슬퍼함으로 옛 사람(죄성)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의의 본

성)의 옷으로 갈아입는 성화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다(엡 4:22-24). 죄를 버리고 민족의 죄를 교회가 책임지는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론분열과 정치 사회적으로 국민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속에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비판하는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 오늘의 나라의 혼란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야 하겠다.

한국교회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한국사회 안에 예수 살함과 화목을 이루는 모판이 되게 하옵소서.

3. 탐욕, 과소비, 향락을 멀리하고 물질적 금식 뿐 아니라 문화적 금식을 실천하자.

역사 이래 대한민국이 오늘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의 번영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일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시대만큼 탐욕과 과소비 향락이 만연한 시대도 찾기 어렵다. 기독교인들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에는 기독교와 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오늘날 대한민국에 만연한 국가

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의 책임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순절 기간동안 기독교인들은 금식과 특별새벽기도 등 영적인 절제와 청빈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음식과 의복 그리고 생활방식 등에서도 비싸고 화려한 것들을 피하는 등 육적인 절제와 청빈의 삶도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오락이나 유흥 향락을 피하고 문화적 금식을 함으로 영적 육적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 휴대폰 사용도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휴대폰 사용 유보, 인터넷 오락 사용 유보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자.

4. 가난한 이웃, 소외계층, 외국인, 탈북민을 돌아보아 구제에 힘쓰자.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낮아지심과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하나님 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곧 죄로 더럽고 비참하고 하나님과 소외된 형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급하시므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와 신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낮아지심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고아, 독거노인, 가출 청소년, 청소년 가정, 노숙자, 쪽박촌 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탈북민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찾아 사랑의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다.

5. 한국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은 통회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다. 주님을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영광을 원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한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회가 갈라지고 분열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사랑을 통한 연합의 길을 걷지 못했다.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애국심을 다르게 표시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기도회를 가졌다. 탄핵찬성파들은 반대파를 “극우들”이라고, 반대파들은 찬성파를 “빨갱이”라고 비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를 향하여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이름이 조롱당했고 교회는 사회가 기대하는 신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되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같이 기도했으면 한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연합과 상호 신뢰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한국사회 안에 예수 살함과 화목을 이루는 모판(母板)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3월 31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2025학년도 한국어학당 개강

아신대,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감 높여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베트남 학생 26명을 맞이하는 개강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개강식은 특별히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사로 준비되었다.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어로 인사 영상을 제공, 학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개강식은 교수와 직원들의 소개로 시작되어, 학생들은 학당의 교수진과 직원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총장님의 폐회기도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모두가 조용히 기도에 집중하며 개강식

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도 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며, 이날의 기념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개강식은 한국어학당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학당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학생들의 한국어 능력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련문의는 아신대학교 한국어학당(031-770-7795/7731, skyair@acts.ac.kr)으로 하면 된다.



기아대책, 미얀마에 지진 구호팀 급파

미얀마 군정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요청

NGO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28일 발행한 미얀마 강진 긴급 대응을 위해 미얀마 지부 스템으로 구성된 1차 긴급구호팀을 급파했다. 미얀마는 지난 28일 미얀마 중부 사가잉주 북서쪽 16km 떨어진 지역에서 7.7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또한 1차 지진 발생 12분 뒤 6.4규모의 여진이 추가 발생했다. 이번 강진으로 사망자만 1만 명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에 미얀마 군정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아대책은 약 1억 5천만 원(10만 불 상당) 상당의 긴급구호 초기 대응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기아대책 미얀마 지부는 지난 30일 만달레이 시 아마라푸라(Amarapura) 지역에서 현지에서 긴급으로 필요한 식수와 식량, 웰터용 방수포 등을 지원했다. 또한 인레 호수(Inle Lake) 지역의 지진 피해 가정 500가구를 대상으로 쌀과 세제, 식용유, 라면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



며 1차 초기 대응에 착수했다.

긴급구호팀으로 파견된 '에스터' 현지 스템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부터 굳건히 마음을 다잡았다”며 “함께하는 구호팀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긴급구호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원호 씨 후원

신장·간 기증 장원호 씨 담도암 투병...표적 항암 치료비용 8천만 원 모금

신장과 간 기증으로 생면부지의 두 환자를 살린 장원호 씨(73세)가 담도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장 씨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나섰다.

장원호 씨는 1994년, 얼굴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결심이었다.

당시는 의료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 생존 시 신장기증은 신체적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생각에서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4년, 장 씨는 또 한 번 생명을 나누는 선택을 했다. 이번에는 간 일부를 기증하며 질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한 것이다.

이후 30년간 건강하게 생활해 오던 장 씨에게 지난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추석 무렵 극심한



피로와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담도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이다. 장 씨의 몸에 생긴 암은 담도와 담낭 사이에 생겨 생존율이 매우 낮는데, 당장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다.

표적 항암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경제 활동도 불가능한 장 씨는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본부는 30년 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장기를 나누며 두 생명을 살린 장원호 씨를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표적 항암 치료를 마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금액은 약 8000만 원으로, 장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본부는 장기부전 환자 및 생존 시 장기기증 인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나부터포럼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 포럼

초기 한국선교의 정신 고찰,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진단

‘나부터포럼(대표 류영모 목사)’이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라는 주제로 지난 3월 18일(화) 새문안교회 새문안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기 한국선교의 정신을 고찰하고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으로 열렸다.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목사는 “흔히 우리는 위기 시대 분절로 돌아가자는 말을 한다. 물론 이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은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복음

을 전해 준 그 선교정신과 열정으로 돌아가자는 말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러하여 나부터 포럼은 140년 전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4개 교단 신학대학 대표적 역사학교수님들과 함께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금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딘 지 꼭 140년 이 되는 해다. 암울했던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온 기독교는 당시 고난 받는 백성의 친구였다”며 “한국교회가 민

족의 친구로 걸어온 지 140년! 한국의 근·현대 문화는 곧 교회와 함께 걸어온 기독교 문화였다”고 정의했다.

또한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을까? 한국교회 공간의 형성과 역할, 한국 교회의 선교, 그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 연합운동의 유산은 무엇인가?라는 4분 교수님들의 테드(TED)식 강의를 모았다”며 “열린 토의를 통해 돌아보기(과거), 바라보기(현재), 내다보기(미래)라는 관점으로 본 포럼의 소중함을 광주리에 담아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현)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 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자존심이 부른 재난



러시아의 한 시골에 어느 농부가 키우는 닭이 있었는데 이 닭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계란을 가지러 간 농부의 자녀는 닭의 보금자리에 알이 없어 당황해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옆집에서 “이야, 오늘 우리 닭이 알을 두 개나 낳았잖아?”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옆집으로 찾아가 자기네 닭이 이곳으로 넘어와서 알을 낳고 간 것 같다고 사정 설명을 하고 그 달걀 하나는 자기네 것이라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집남자는 그럴 리가 없다며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말을 들은 농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당장 옆집에 찾아가습니다. 결국 양쪽 집 농부의 부인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두 집 남자 어른들, 농부들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집의 가족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는데, 이 싸움은 몇 주간 계속되다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닭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 달걀 하나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농부가 이 화를 못 이기고 한 밤중에 옆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 집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날에 몰래 서로의 닭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 나온 두 가족은 활활 불에 타는 자기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작 달걀 하나였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구려.” 실제 농장을 운영했던 톨스토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은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응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마침내는 서로 망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칭찬 듣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승리의 십자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평생을 묵상해도 오직 감사뿐...
영생을 주시려 큰 고통 견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 아닌 승리.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 사탄.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진리.
성령이 도우셔야 임하는 은혜.

보혈의 흰옷입고 그 길을 가네.
부활을 바라며 그 길을 가네.
선물로 주신 구원 값이 새기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네.

이천년 전에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한다. 성령께서 '네가 믿으면, 그 승리가
네 것이 된다' 말씀하신다.

사설

교회를 휘파하려는 세력과 맞서는 용기

우리나라에서 정신이상자를 집합소가 헌법재판소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도박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거기에는 남여가 있으니 하는 말들이 '미친*놈들이' 있다고들 말한다. 참으로 딱하게 됐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때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재판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들이다. 일정한 기준도 없고 법과 원칙도 없다. 제 기본 내키는 대로, 제 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반대 판결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판결 사유도 껀변 일변도다. 제정신이 아닌 정신 이상자가 하는 말같다.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을 유죄로 본 것이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을 내린 것인데 2심에서는 뻔한 얘기를 뒤집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에서 하는 말은, 협박이라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고 김문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때 핵심 실무자였다. 핵심 실무자들, 그리고 수시로 만난 사람을 모른다고?

죽었으니 뒤집어 씌워도 괜찮다? 함께한 많은 사진도 있고 대화 녹음도 있는데, 모른다? 세상에나 거짓말도 유분수지...그런 죄가 확실한데 무죄? 이재명 대표 외에는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도 무죄라고? 껀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황당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은 '판사가 미쳤다는 말이다.

거짓말을 해도 무죄이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망 놓고 거짓말해도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판결하기를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를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이라고 말들을 한다. 사법 카르텔은 법조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협력과 특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말이다.

권순일, 유창훈, 김동현, 최은정(2심 재판관)으로 이어져 갔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을 우물에서 건져주었고,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국회 체포결의서 통과)을 기각했고,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들은 이재명을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 배치가 사법부를 망친 것이다. 진보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 자기편 영장을 기각해주고, 무죄를 마구잡이로 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치도 코치도 보지 않는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이재명, 범죄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다시 부활절을 맞는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첫 열매시며, 부활이요 생명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을 두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구도가 극에 달하고 남북관계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화, 교회를 휘파하려는 세력과 맞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절실한 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부활의 기쁨, 나눔의 기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끝에서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이자 축복입니다.

<생명나눔에배 참여 안내>
본부 소속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예배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이 진행됩니다.
등록한 성도님께서는 등록증을, 교회에는 기쁜때를 전달합니다.

<신청 및 문의>
교회협력팀 02-363-2172 | www.donor.or.kr

장기기증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